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농촌진흥청 동정 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즉시 배포 배포 2026. 11. 20.(금)

“현장에 답 있다”…농촌진흥청, 제주 지역 선도 농업인 간담회 개최

- 이승돈 청장, 20일 제주 농업기술명인·농업인단체 간담회 연달아 참석
-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명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
- 농업인단체 지도력·인적 연결망 활용…현장 밀착형 정책 실행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0일 오후 제주 지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과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단을 차례로 만나 주요 지역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 수요와 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명의 농업기술명인이 나왔다.*

* 제주 지역 명인 현황: 6명(’09년 이기승백도라지, ’13년 이규길보리, ’19년 김형신양배추, ’21년 김종우감귤, ’24년 문성옥메밀, ’25년 강만희감귤)

이날 최고농업기술명인 간담회에는 이기승(2009. 특작), 김종우(2021. 과수), 문성옥(2024. 식량), 강만희(2025. 과수) 명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후계 농업인을 위한 기술 전수 방안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명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기술명인들의 탁월한 기술력과 오랜 시간 체득한 경험은 우리 농업을 받치는 든든한 경쟁력”이라며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명인들의 숙련된 기술에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찾아 제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고농업기술명인을 ‘현장 명예 연구·지도관’으로 위촉해 농업 연구·지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연구와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 지도력과 인적 연결망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라며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농정 전파와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라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주 지역 선도 농업인 현장 간담회 일정

담당 부서 <농업인단체>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택상 (063-238-0910)
		담당자	지도관	김태근 (063-238-0929)
<농업기술명인>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책임자	과 장	장기창 (063-238-0970)
		담당자	지도관	엄미옥 (063-238-0986)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주 지역 선도 농업인 현장 간담회 일정**

□ **개요**

ㅇ 내용 : 제주 지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관계자 현장 간담회

ㅇ 일시 : '26. 11. 20.(금) 13:50~16:00

ㅇ 장소 :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3:50 ~ 14:30	40	· **제주 지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현장 간담회** - 참석 : 이기승 명인('09. 특작), 김종우 명인('21. 과수), 문성욱 명인('24. 식량), 강만희 명인('25, 과수)	장소 : 농업회사법인 '오라' (제주시)
14:30~15:00	30	· 이 동	
15:00~16:00	30	· **제주시농업인지도자 간담회** -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시)